

# 여천NCC, 한화 인수 가능성 대두!

## 대림산업 석유화학 비중 축소 따라 ... 쉽사리 결론 내지는 못할 듯

여천NCC(대표 이용구)의 매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어 사태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3년 들어 급변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기업 판도 변화를 둘러싸고 여천NCC 매각문제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여천NCC 매각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수기업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석유화학이 거론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석유화학은 여천NCC에서 2025년까지 에틸렌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만일 여천NCC를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석유화학 구도가 기존의 다자구도에서 자금력을 갖춘 몇몇 핵심기업으로 집중되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4월 기준 에틸렌 생산능력 140만톤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여천NCC는 1999년 말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양사의 NCC부문만을 분리해 50대50의 지분으로 통합 설립했다.

설립 당시에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02년에야 비로소 적자경영을 벗어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천NCC 매각설의 발단은 여천NCC 절반의 지분을 보유중인 대림산업이 그동안 Basell과 합작해 폴리미레를 설립하면서 PP(Polypropylene) 부문을 매각하는 등 지속적인 석유화학부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4>